

# 근본 행기는 보험사, '뇌·심장·암' 3대질병 보장 강화

교보생명, '뇌·심장' 라인업 강화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상품 준비

흥국생명·화재, 장수시대 맞춰  
시니어층 타깃 가입 문턱 낮춰

보험사들이 한국인의 3대 질환으로 꼽히는 '뇌, 심장, 암' 질병 보장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가입 연령의 폭을 넓히는 등 근본적인 건강보장에 힘쓰는 모양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국인 5명 중 1명은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뇌·심장 질환은 암과 함께 한국인의 3대 질병으로 꼽힐 만큼 발생 빈도가 높아 적극적인 대비를 요구한다.

교보생명은 지난 2월 뇌·심장질환 진단부터 수술, 치료, 입·통원, 장애간병 지원까지 보장하는 '교보뇌·심장보험(무배당)'을 출시했다. 뇌·심장질환 특화보장보험으로,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의 치료 여정별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올 1월 '교보통큰암보험'을 출시한



지난 1일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한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후 뇌·심장질환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잇따라 출시함으로써 건강보장 상품 라인업을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건강보장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한국인의 2대 질병인 뇌·심장질환을 폭넓게 보장하는 상품을 선보였다"며 "치료 여정별 맞춤 보장이 가능하고 뇌혈관질환·허혈심장질환에 대한 보장을 확대해 더욱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흥국생명은 80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암보험인 '다(多)사람암보험(해약환급금미지급형V2)'을 지난 26일 출시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80세까지 보장하는 기존 암보험 가입자들이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로 80세 이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암 진단 및 소액암 담보를 기본형과 체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체증형은 80세 만기 상품을 보유한 기가입자

용으로 기존 암보험 상품 가입자의 보장공백을 대비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여성의 평균수명이 90세를 넘어서고 있지만 50대 이상 암보험 가입자의 90%가 80세 이후에는 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며 "80세 체증형은 기존 암보험 상품의 보장 공백을 빈틈없이 매워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손해보험사 중 흥국화재 역시 장수시대에 맞춰 90세도 가입하는 '무배당 흥 Good 간편한 6090 청춘보험'을 지난 19일 출시했다. 암·뇌·심장 질환과 노인성 질환 보장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60~90세 시니어층을 주고객으로 해 보험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장수시대에 맞춰 통상 80세로 한정됐던 가입연령을 90세로 확대하고 가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담보도 늘렸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층의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며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보장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60~90세대의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 이창용 한은 총재 BIS총회 참석차 출국



이창용 한은총재(사진)가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장길에 오른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스위스 바젤에서 열리는 BIS 총재회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출국해 오는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세계경제회의와 전제총재회의, 아시아지역회의에 참석해 회원 중앙은행 총재들과 최근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또 글로벌금융시스템위원회 의장으로 주요 중앙은행 당국자들의 글로벌 금융현안에 대한 논의도 주도할 예정이다.

BIS 이사자격으로 BIS 이사회와 경제자문위원회도 참석한다.

/나우리 기자 yul115@

## 문턱 낮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유치 위해 본질 흐려

가입기준 중위소득 250%로 상향  
혜택 청년 늘리는 데에 주안점 뒀

정부의 청년 대상 정책금융 상품인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대상이 중위소득 250%까지 확대되면서 당초 기획에서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입 대상 확대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청년은 늘어났지만 당초 청년도약계좌가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요건 중 가구소득 기준을 중위소득의 180%에서 250%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구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약 5800만원, 4인 가구 기준 약 1억 5400만원 이하라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 완화를 원하고 있는 상태고, 국회에서도

비슷한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고 6%의 금리를 제공하며 비교세 혜택을 통해 만기 시 약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해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이라는 청년도약계좌의 본질을 흐린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청년도약계좌는 중·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이에 따라 개인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을 함께 평가하고, 정부의 기여금 비율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목표치인 306만명의 17%인 51만명에 그치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청년희

망적금 연계 가입 및 일괄 납입 허용, 비교세 혜택 확대, 중도 해지 시에도 금리·지원금 보전 등 가입자 유치를 위한 방안을 도입했지만 가입자 증가세는 아직 더디다.

금융당국은 청년희망적금의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 추진 당시 143만 6000명이 가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1차 신청 기간이었던 지난 2월 16일까지 연계 가입을 신청한 고객은 약 41만명에 그쳤다.

청년희망적금의 만기가 1~3월에 몰린 것을 고려하면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자는 추가 신청 기간 이후에도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미진한 것은 부담스러운 납입액과 가입 기간 때문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납입액 기준이 월 40만~70만원 수준이며 가입 기간도 5년에 달한다. 고용·소득 불안정성이 높은 청년에게는

가입이 고민될 수밖에 없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180만원, 월 평균 생활비는 161만원 수준이었다. 소득이 평균 수준인 청년이 정부지원금을 최대한으로 적용받기 위한 최소 납입액인 월 40만원 이상을 유지하려면 생활비를 평균 아래로 줄여야 하는 셈이다.

가입자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에 금융당국은 소득 요건이 1인 가구에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기준을 상향한 것으로, 이번 기준 완화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청년을 늘리는 데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준 변경 후 너무 부유한 사람이 (혜택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주 부유한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의미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호텔식 출입구로 디자인한 드롭오프존의 모습. /삼성물산

## 삼성물산 건설부문 iF 디자인 어워드 2개부문 본상 수상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iF 디자인 어워드 2024'의 건축과 인테리어 등 2개 부문에서 본상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의 커뮤니티(The Brillia)와 지하공간(High-End One Park) 등 2개 작품으로 본상을 수상했다.

iF 디자인 어워드는 지난 1953년 독일 인터내셔널 포럼 주관으로 시작된 디자인 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독일의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미국의 'IDEA'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로 꼽힌다.

건축부문에서 수상한 래미안원베일리의 지하 공간은 원활한 차량 통행과 승하차가 용이한 호텔식 출입구, 예술 작품을 품은 지하 공공 보행로 등을 통해 입주주인에게 실용적이면서도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인테리어 부문에서 수상한 커뮤니티는 '그랜드 투어'라는 테마를 바탕으로 디자인 된 수영장사우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부사장)은 "앞으로도 고객의 만족과 프리미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 대구銀, 프론트윈 찾아 핀테크 협업 논의

시중은행 전환 앞두고 협력 모색  
금융의 한계 벗어난 플랫폼 목표

DGB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스타트업 육성 및 투자를 통한 지원 강화 등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방안으로 프론트윈을 방문해 핀테크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프론트윈'은 디캠프가 운영하는 청년 창업 지원 공간이다. 이번 방문은 시중은행 전환을 앞두고 다양한 기업과 협업 모색을 진행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황병우 은행장을 비롯한 대구은행 임직원들은 프론트윈을 방문해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신용보증기금 등 핀테크 기업 지원 기관과 미팅을 진행한 후, 입주기업들을 만나 간담회를 가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은행은 최근 MOU 체결, 전략적 지분투자, 제휴 서비스 출시 등 다방면으로 핀테크 연계를 늘리고 있다. DGB 금융의 핀테크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인 피움랩(FIUM Lab)을 통한 실무 협업도 진행 중이다.



황병우 대구은행장(오른쪽 세번째)이 프론트윈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DGB대구은행

황병우 은행장은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 금융의 한계를 벗어난 플랫폼을 목표로 시중은행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며

"핀테크 상생은행으로서 면모와 함께 다양한 연령층의 사용자들이 혁신적이고 편리한 디지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